퇴직연금시장의 변화와 계리 전문가의 역할

김 진 규
삼정KPMG 금융보험계리 상무
본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6월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액은 431조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2.9% 증가하였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10여년 동안 매년 10% 이상 증가해 왔으며, 한국투자자산운용의 전망에 따르면 2034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1212조원 (2024년 말 기준)이고 국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총자산이 1224조원 (2023년 말 기준)인 것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다른 한 축인 퇴직연금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인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과거 10년 평균수익률은 2% 수준에 불과하다. 해당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이 2% 수준임을 감안하면 실질 투자수익률은 0인 셈이다. 다행히 팬데믹 이후 퇴직연금 투자에 관심을 가진 가입자들이 늘면서 팬데믹 이전에는 10%에도 못 미치던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17%까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각각 23%와 33%에 달하며, TDF(은퇴시점에 맞춰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펀드) 또는 미국 주식형 ETF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다음 장에 계속

수백 조원에 달하는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개선이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퇴직연금이 잠자고 있다는 기존 인식과는 다른 긍정적인 변화이다.

둘째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노후 소득 보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소진한다. 2023년 기준 이직/퇴직에 따른 IRP 이전 금액 21조원 중 해지에 따른 일시금 지급이 15조원에 달해 퇴직금의 70% 이상이 노후를 위해 축적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24년 기준 55세 도달에 따른 인출 개시 계좌의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87%에 달한다. 다행히 인출 개시 계좌의 일시금 수령 비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고액 수령자일수록 연금 수령 비율이 높아서 금액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 비율은 43%까지 낮아진다. 개선의 여지는 많지만 퇴직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한 축으로 사용하려는 가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하거나 도입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구성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입자들이 원리금보장상품 보다 실적배당상품을 선택하기 쉽게 하여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선택할 수 있는 디폴트옵션 중에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된 관계로 아직까지는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원리금보장상품 편중 개선 효과는 크지 않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작성 의무를 부과하였다. 기업들의 원리금보장상품 위주 투자 관행에 따른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적립금운용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경영진 차원의 관심과 수익률 관리를 유도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도 개선된 관계로 아직까지는 원리금보장상품 투자 비중이 2021년 말 94%에서 2024년 말 92%로 별로 감소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다음 장에 계속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투자상품 중에서 선택하는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와 달리 다수의 가입자 자산을 통합하여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였다. 도입 후 짧은 기간이지만 연 6~7% 정도의 높은 투자 수익률을 얻었으며, 이러한 성과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다만 기금 운용자로 국민연금이 검토되고 있는데, 기존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국민연금의 진입에 따른 시장 왜곡 효과를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내 대부분의 보험계리사들은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보험업계 점유율이 2024년 말 기준 22% 정도이고 특히 DC형 퇴직연금은 14%, IRP는 5%로 저조한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분야에서 보험계리사의 역할은 주로 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재정검증 목적 책임준비금 계산이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나 DB형 퇴직연금에서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부과에 따라 새로운 역할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자산 축적이 되어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대규모 은퇴가 시작되면서 퇴직연금사업자 입장에서 기존에 중점을 두었던 적립 관점보다는 인출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역할이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능가하는 최대 규모의 자산이 될 것인데 투자수익률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어 자산 운용 전문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연금 계리 전문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이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국가적 도전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퇴직연금 분야에 대한 계리 전문가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